

'새만금에 새 하늘길이 열린다'

군산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원 협업체계 구축 '시동' HJ컨소시엄·10개 유관부서 합동 설계작성 회의 개최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관내 대규모 국제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군산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부문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J컨소시엄과 함께 연말까지 진행될 설계작성을 위해 군산시 유관 부서들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HJ컨소시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장래 활주로 확장을 대비해 기본계획상 C급보다 높은 E급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

를 설계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계획상 직각유도로 외 평행유도로·고속탈출유도로를 추가 설치하고, 각종 안전시설을 보강해 활주로 운영등급을 기본계획상 CAT-I 보다 상향된 김해·제주공항과 같은 CAT-II 등급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활주로 운영등급은 활주로 가시거리가 짧아도 착륙이 허용되는 기준을 말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안전시설, 장비가 확충되어 악천후의 상황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현재 활주로 운영등급이 가장 높은 공항은 인천·김포공항으로 CAT-IIIb이며 다음으로 김해·제주공항이 CAT-II, 대구·청주·무안공항 등이 한 단계 낮은 CAT-I 등급이다.

이번 회의에선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설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군산시의 다양한 협의사항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국제공항과 기존 도로의 연계방안 △새만금 지역 내 지적 관련 의견 △태양광 시설과 공항시설 경계부 간섭에 관한 의견 △토석 채취 및 토질 적치장에 대한 협의 △건설 폐기물에 대한 의견 등이 다루어졌다.



군산시가 관내 대규모 국제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시행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위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은 물론 항공·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교통물류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된다.

군산시는 교통물류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새만금 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용률·취업자 상승 지속

고용시장 탄력적 회복 가시화... 향후 노동시장 활력 전망

지난 20일 군산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전년동기 대비 0.7%p 증가한 58.1%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산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1,800명이 늘어난 13만4,700명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회복세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군산시 고용 통계 역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포함)는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700명이 감소했다.

특히 만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3백명이 늘어났으나 취업자 수는 1,800명으로 인구 증가 대비 큰 폭으로 고용률이 상승했다.

중상사 지위별 취업자 현황 역시 1년 이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자인 상용근로자가 9만1,2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0명이 증가한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명이 증가했다. 군산시는 상용근로자 증가를 두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6,300명으로 큰 폭 증가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안내문 1800건 발송

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시는 8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미환급금 1억여 원, 약 1,800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환급금 중 지방소득세가 965건 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세가 858건에 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재산세는 17건으로 200만원이다.

익산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고 전화를 걸어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정부 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063-859-565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에 머리 맞대

익산시,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더욱 완성도 있는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업의 기본구상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 생태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훼손된 수변생태축과 조류서식처 복원을 비롯해 식생 계획 등

단절된 도시 생태축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용역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목천포천은 지난해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단절·훼손된 수변생태축을 복원하고 수변 완충 녹지대와 수질오염 정화습지를 조성해 생물서식처를 개선 및 확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산물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마을전자상거래 '익산물' 올해 매출 전년 대비 27% 상승 '인기' 내달 10일까지 추석 기획전 진행... 사과·배 등 최대 30% 할인

지역 농산물을 손쉽게 사고파는 '익산물'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익산물 매출액은 25억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기록인 19억9,400만원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익산물(iksanmall.com)은 익산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가치를 내걸고 지역 소농이나 고령농에게 인터넷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지에서 직송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물은 올해 매출 4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철 농산물 판매 기획전 △

라이브쇼핑 △명절 기획전 △뫼난이 농산물 판매 기획전 △어려운 농가 돕기 기획전 등 다양한 판매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에도 오는 9월 10일까지 명절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 주요 상품은 △사과·배 9과 선물세트(2만 9,900원) △사과·배·사인머스켓 5과 선물세트(2만 3,900원) △머스크 멜론 2수(1만 6,900원) △투비스 스위트·골드스 스위트·블랙사파이어 포도 1.5kg(3만 5,000원) △꿀고구마 5kg(1만 6,900원)이다.

당도가 높은 과일과 품질 좋은 각종 농산물을 정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익산물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5%를 적립 받는다. 무료 배송은 덤이다.

농가는 판로를 확보해 적기에 소득

을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농산물 구매로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로 상생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마을전자상거래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이 열리는 NS푸드페스타와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로서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입점 농가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앞으로 입점 농가 만족도 조사나 간담회를 통해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평소보다 이른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며 "가격을 대폭 할인한 기획전을 준비한 만큼 맛 좋은 농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중학생 대상, 월 5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

군산시, 9월 1일부터 무상교통 2단계 확대 시행

군산시는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2단계(중학생)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 단체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 11월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왔다.

무상교통비는 군산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신규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2009년 ~

2011년생 학교 밖 청소년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 신청은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freebus.gunsan.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2단계 사업 시행 전 회원 가입한 경우엔 신속한 배부를 위해 지난해 고등학교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협조를 통해 학교별 신청자에게 교통카드를 직접 전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063-454-3786~7)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KBO리그 야구 직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

지난 22일 군산시는 전북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을 위한 'KBO리그 야구 직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청년 근로자와 사업 전담 매니저 등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열린 경기 원인과 함께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청년 근로자들이 스포츠 관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상호 소통하며 유대를 형성하는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이번 행사외에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반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한 글램핑 체험, 바다낚시,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